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6강 손병두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손병두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30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선진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영철 亞문화개발원장 부적절 처신 논란

추진단에 "전시 총감독만 맡겠다" 밝혀 문화전당 개관콘텐츠 부실 비판 속 물의

이영철 아시아 문화개발원장이 원장직에서 물러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전시 콘텐츠 개발만을 맡겠다는 추진단의 전시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전시·공연·운영프로그램 등)가 부실한 판을 밟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새로운 직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30일 오후 추진단 관계자와 면담에서 "경영·문화기획을 총괄하는 문화개발원장직을 그만 두고 문화전당 전시 콘텐츠만을 총괄하는 가정 전시총감독을 맡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문화전문가로서 경영까지 겸직하는 바람에 문화

전당의 개관(2015년) 콘텐츠 개발에 전력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언급한 전시총감독은 문화전당의 2대 콘텐츠인 전시·공연 가운데 전시만을 따로 떼내 맡는 직책이다. 추진단이 이 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면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는 예술총감독과 전시총감독 2인이 나눠 맡게 된다. 추진단은 지난해말 사임한 프리 라이젠 예술총감독의 후임자를 고르고 있다. 추진단은 프리라이젠 감독의 공백이 길어지면 전시문화전당 개관 공연 준비에 차질을 빚는 만큼 이 원장의 '보직변경' 제안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에 대한 논란의 장본인이 해당 콘텐츠의 하나인 전시부문을 맡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비판

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화 전문가 A씨는 "문화전당에서 생산된 문화콘텐츠의 유통을 맡는 문화개발원이 문화전당의 전시 콘텐츠 개발을 맡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책임자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난맥상을 바로잡고 문화전당의 체계적인 개관 준비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당의 전담 운영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 문화계의 B씨는 "문화개발원장이 원장직을 그만두면 문화개발원의 수장이 공석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둘러 전담 운영할 전담인력을 꾸려야 문화전당 개관 업무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원장은 이와 관련, "문화전당 콘텐츠를 구체화하고 업무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현상으로 내려가 직접 일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을 말한 것 뿐"이라며 "일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충정을 알기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F1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광고 수익 다변화 등 안정적 개최기반 마련

F1 대회 개최를 위한 국제 지원 근거를 만들고, 대회 운영 주체를 F1조직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1대회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F1대회의 규비와 스포츠도 등 자금 지원과 경주장 임대, 광고를 통한 수익이 다변화되는 등 안정적 F1 대회 개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이날 "지난해 9월 황주홍(민주

의원 등 전남 출신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F1대회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크게 F1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운영 주체를 F1 조직위로 통일해 다양한 수익 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스포츠도부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해 F1을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생겼

고, F1 조직위가 경주장 임대, 옥외광고 등을 통해 다양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법이 정비됐다. 그동안 대회 운영기업(KAVO)이 수익 사업을 맡고, F1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총괄하던 이원화 된 시스템도 KAVO의 철수로 조직위가 모든 것을 맡는 것으로 일원화됐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경주장 임대로 매년 30억원가량의 수입이 예상되고, 전국 옥외광고물 배분을 통해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올 대회 개최를 위해 스포츠도부 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데 법적 근거가 생겨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시왕도' 보물 승격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 및 '시왕도(十王圖)'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00호로 승격, 지정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해인사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1799호),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1801호), 석가 같은 불상의 복장전적(1802호)이 지난 30일 보물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보성 대원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는 지난 1766년 명부전에 봉안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8세기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표적 화승인 색민(色民) 등이 제작한 작품이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명부전 불화 가운데 지장보살도, 시왕도와 사자

도가 함께 남아 있는 드문 사례로, 그림마다 제작 시기와 봉안처 등을 기록한 화기(畫記)가 있다. 대원사 불화는 조선시대(1766년·조선 영조 42)에 명부전 봉안용으로 조성된 불화로 지장보살도 1점, 시왕도 10점, 사자도 2점 등 모두 13점이며 9폭으로 표구돼 있다. 이 보물들은 조성 이후 계속 보성 대원사 명부전에 보존돼오다 1946년 광주 덕림사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1948년 대원사 명부전 화재 때 극적으로 화를 면했던 대표적 화승인 색민(色民) 등이 제작한 작품이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명부전 불화 가운데 지장보살도, 시왕도와 사자



'지장보살도' 이 불화는 전체 구성이 잘 남아 있고 우수한 화승이 제작에 참여해 화면 구성이나 채색 등에서 18세기 불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성숙한 시민사회 준법정신이 기본돼야”

“손’과 가슴과 머리와 습관을, ‘병’을 해서, ‘두’무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나이입니다.” 손병두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은 본인 이름으로 지은 삼행시로 자신을 소개하며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했다. 강연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지난 30일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선진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자'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그는 한국의 현재 세계속 위상부터 강조했다. 경제성장은 물론, 올림픽 순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세계속의 한국인 등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일 이 정말 많다 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안엔 자살률 1위, 사회 갈등의 심화, 절제된 이념 갈등 등 그림자가 짙어 이를 하루빨리 지워내야 선진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이사장은 “이제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는 심판자로서 인프라를 깔아주면 된다”며 “국가의 역할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숙한 시민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예의, 도덕성, 윤리의식 등 기본부터 갖춰야 한다”며 “내가족제도 때는 조부 등이 예절도 가르쳤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결국 학교가 이를 도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의·도덕·윤리의식 강조 배려 없으면 상생 힘들어 특화기술 갖춘 인재 키워야

시민사회가 성숙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이사장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 보니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부터 좀 더 넓게는 여·아의 극한 대립 등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모두다 상생을 주장하지만 서로 배려하지 않는 한 상생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 국민이 진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남의 탓을 한다’고 걱정했다는 얘기를 전하며 “정치가 신뢰를 쌓고, 소통을 만들며 협력이 이뤄져 결국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강연 내내 국내외 유명인사들이 원칙과 법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24세의 나이에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려 했다가 규정이 18세를 넘어 입학할 못할 처지에 이르자 ‘입학을 못하면 그만이지 나이를 속일 수는 없다’며 정직함을 소중히 했던 얘기와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요 재산이다’라는 말을 남긴 링컨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화원들에게 전했다.

그는 “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선진국을 가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만 못하다”며 “불법과업이 쉽게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불법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압축된 성장 때문에 지나친 이기주의와 ‘때박이’ 폐배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치주의가 실종되면서 불평등·불공정 사회로 변화하고 나아가 청년층의 불안이 폭발하고 있다”며 “갑사와 나눔, 주인의식,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러한 성장의 그늘을 극복하고 감정을 살려 진정한 선진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이사장은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회원들이 뛰어난 리더십과 혁신 능력을 갖춘 “한국형 하든 챔피언”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든 챔피언”은 지난 1996년 독일의 경영컨설턴트 헤르만 지몬이 제시한 개념으로 세계시장 3위 이내, 매출 40억 달러 이하로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하든 챔피언을 공략하는 것이 한국형 하든 챔피언 전략”이라며 “경쟁력과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기술, 고주파 지방분해 기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개림동 ● 구.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자구 ● 영광 ● 호남대학교 ● 어등산골프장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만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효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종-473호